

사람들은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어 간다. 28살 이규호의 인생이라는 영화의 28번째 스토리는 미국 일리노이에서 있었던 나의 IFYE 프로그램이다.

#### 4-H와의 만남

나의 첫 4-H의 만남은 대학생활 중이었다. 동물생명공학이 전공인 대학생활과 학생창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던 나는 코로나 세대의 편입생이었고 많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대외적 활동에 많은 니즈가 있었다. 겨울방학때 인턴생활을 했었는데 유튜버와 함께 협업을 하는 기회가 생겼었다. 그 유튜버는 강원도 4-H 회원이었고 4-H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다. 그때 나는 4-H에 가입하고 싶었으나 중앙대학교에는 4-H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팀원을 모집하여 중앙대학교 4-H를 만들게 되었다. 처음 뜻이 맞는 3명과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농축산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81명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4-H에서 주관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연계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통해 안성시 지역 단체와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런 활동들을 용감하게 해 나갈수 있었던 것은 4-H의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였다.

#### IFYE의 시작

대학 4-H 회장으로 많은 활동을 한 후 직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무렵 IFYE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해외의 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서를 쓰며 나의 인생을 뒤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IFYE를 통해 얻고자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면접을 보기 직전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많은 정부지원사업을 준비중이었고 나의 목표인 팻푸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에 대한 걱정이었다. IFYE를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나의 선택을 믿기로하고 IFYE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

“ 자신감, 넓은 시야, 네트워크 ”

나의 IFYE 목표는 성장, 넓은 시야, 네트워크 였다. 나는 IFYE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내가 목표한 계획들을 달성하고 싶었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의 IFYE프로그램은 미국 일리노이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최대의 옥수수과 콩 생산지역이었고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



### 오리엔테이션

IFYE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워싱턴에 갔다.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프로그램에 임해야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 필립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다. 오리엔테이션은 2박 3일간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워싱턴 D.C를 투어했고 백악관과 에이브라함 링컨 기념비 등 여러 명소를 관람했다. 영상에서만 봤던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흥미로웠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또 IFYE에 참가한 친구들은 모두 다 열정적이었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서로의 문화를 궁금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자 노력했다. 아쉬웠던 점은 회화가 부족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지 못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규모, 한국농업, 북한과의 관계 등 한국과 관련된 여러분야에 대한 정보에 대해 궁금해 했는데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 마지막 날 밤, 나는 모든 IFYE 참가자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Alan(IFYE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고 나는 참가자들에게 만나서 반가웠고 내 영어실력이 더 좋았더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성장해서 언젠가 우리가 만날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 일리노이로의 출발

워싱턴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의 IFYE지역인 일리노이 비행기를 탔다. 오리엔테이션에 Carolyn Hansen, 일리노이 IFYE 담당자분이 함께 하셔서 같이 일리노이로 오게 됐다. 미국에 도착해서 Red Robbin이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놀랐던 점은 햄버거 패티도 굽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정말 맛있었다. 이후 Ropp의 jersey 치즈공장에 방문하여 간단한 파티를 했다. 야외에서 핫도그를 구워 먹었고 파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든 요리들을 가져와 나누는 방식의 문화를 처음 접해보았다. 간단한 파티가 끝나고 첫번째 호스트 패밀리인 Paul의 집으로 갔다.

### Rice Family - Paul Rice & Dennis Rice

처음으로 간 호스트 패밀리의 집은 일리노이의 주도인 스프링필드에 위치하고 있었다. 폴은 Beef 농장과 옥수수밭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업은 경매사였다. 나의 꿈이 사료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폴은 나에게 자신이 소들에게 주는 사료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사료뿐만 아니라 소를 키우는 방법과 어떻게 그것들이 유통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셨다. 한국과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지역 특산물을 애용한다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편의점, 대형마트들이 주로 제품을 사는 경로였다면 미국에서는 지역 특산품들을 주로 구입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폴과 함께 소들에게 비타민,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기도 했고 농장에서 아픈 소를 개별 사육장으로 옮기기 위해 소몰이도 해보았다. 농장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트랙터 운용방법을 배웠고 사일리지를 트랙터로 직접 나르기도 하며 잊지 못할 경험들을 했다. 또 폴의 손녀, 손자와 함께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블루베리를 따며 직접 따온 블루베리로 파이를 만들어 먹기도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나는 대학교에서의 축산 관련 전공 이론과 실습, 청년창업 육성장학생으로 여러 번의 실습을 해왔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장 체험 경험이었다. 또 미국에서의 4-H Fair에 방문하여 젓소, 육우, 돼지를 비롯하여 염소, 강아지, 토끼 등 다양한 4-H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폴은 나를 위해 다양한 사료를 판매하는 곳에 함께 해주셨다. 가서 사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객을 위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하는지 아들에게 설명해주듯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다. 또 아시아 식당에서 쌀국수와 초밥 등을 함께 먹었고 나는 그들에게 초밥을 먹는 방법과 아시아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함께 낚시를 했고 미국에서 하는 첫 낚시였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나는 시카고를 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이기도 했고 큰 도시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은 나와 함께 시카고 여행을 계획했다. 많은 시간이 없어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향했다. 시카고에 도착해서 폴의 조카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고 미시간 호수를 산책했다. 시카고는 정말 컸다. 그리고 곳곳에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어 인상깊었다.





폴과 함께 시카고를 돌아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그리고 스프링필드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폴도 그의 IFYE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며 자신도 언젠가 IFYE의 호스트로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폴의 집에 온 첫번째 IFYE 회원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것을 듣고 나역시 나중에 IFYE 회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문화를 공유하고 내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한국에서 미국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주기 위한 선물로 보석함과 부채, 키팅, 한국음식을 챙겨갔다. 그들은 나의 선물을 마음에 들어했고 한국음식을 좋아해주었다. 직접 한국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게 좋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선물할 수 있는것이 행복했었다.

### IFYE 컨퍼런스

폴과의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두번째 호스트 패밀리의 집으로 가기 전 IFYE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일리노이 노멀로 향했다. 미국 전역의 IFYE 회원들이 참가하는 행사였고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셨다. 2022년 IFYE 회원은 한국에서 온 나와 스위스에서 온 마르티나였다. IFYE 회원분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해주셨다. 그중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나를 정말 반갑게 대해주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나에게 오셔서 한국으로 IFYE를 다녀오셨다는 말씀과 함께 아리랑을 불러주셨다.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아리랑을 불렀고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부른 아리랑이었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다. 또 어떤 분은 한국어로 인사해주셨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인상깊었던 점들을 공유해주셨다. 이렇게 IFYE를 먼저 체험해보신분들의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얼마나 행복한 추억이었는지 가늠이 갔다. IFYE 컨퍼런스동안 야구경기도 보았고 나와 마르티나는 시구를 했다. 이후 에이브라햄 링컨 묘지와 박물관, 생가에 방문해보며 미국인들의 애국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 한국전쟁 기념비와 베트남전 기념비 등 여러 기념비들을 보며 조문하는 분들을 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군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IFYE 컨퍼런스 개최식이 시작될때 IFYE 회원국의 국기가 걸리게 되는데 태극기가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타국에서 태극기를 보는것이 이렇게나 반가운 일인줄 몰랐고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Pratt Family - Rob Pratt, Ellen Pratt, Luke Pratt, Bob Pratt

IFYE 컨퍼런스가 끝나고 두번째 호스트 패밀리인 Pratt 하우스로 향했다. Pratt의 집은 일리노이 Hopedale 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에 있었다. 룩이 아빠였고, 엘렌이 엄마, 룩은 막내아들이었다. 리베카는 둘째딸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IFYE에 참여하여 내가 리베카의 방을 쓰게 되었다. Pratt의 가족들은 굉장히 친절했고 정말 따뜻했다. 아빠 Rob은 미군 장교출신으로 할아버지의 옥수수농장과 콩농장을 운영했고 주로 농장일을 하셨다. 엄마 Ellen은 공군장교출신으로 의사였다. Luke은 고등학생이었고 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의사가 꿈인 바른 학생이었다.

Pratt 가문의 집으로 갔을 무렵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행사가 준비중이었다. 우리는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트랙터를 청소했고 직접 운전도 해보았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지역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와 같은 곳들이 참여하며 지역 농부들을 비롯해서 회사들도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퍼레이드에 참여할 땐 사탕들과 간식들을 준비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나와 Luke은 트랙터를 운전하며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져주었다. 이런 경험은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남았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관람했다. 한국에서도 가족들과 불꽃놀이를 자주 보곤했는데 미국의 가족과 함께 불꽃놀이를 본다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이었다.



Pratt 가족들과 있는동안 나는 옥수수, 콩 농장일을 돕기도 했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지역특성과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 창업을 꿈꾸는 나를 위해 6차산업을 하고 있는 농장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고 모든 가축 농장에 방문하게 해주셨다. 앵거스농장과 젖소농장, 닭농장 등 정말 많은 농장들의 방문하면서 농장별 특이점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셨다. 또 룩이 다니고 있는 농업회사에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함께 하루종일 여러 옥수수 농장과 콩농장에 방문하면서 방제를 해도 되는지, 작물들의 상태는 괜찮은지 일일이 체크해보았다. 가장 인상깊었던 경험은 사료회사에서 이를 동안 있으면서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하는 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 산업분야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던 점이 정말 감사했다. 농업과 관련된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레저활동을 제공해주셨다. 낚시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번 낚시를 함께 가주셨고 카약, 클레이 사격, 권총사격, 다람쥐 사냥, 4박 5일의 낚시여행 등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제공해주셨다. 절대 잊지못할 경험이었다.



#### Doyle Family - Becky Doyle

도일가족은 돼지농장을 운영하셨다. 농장에 많은 외국인 인턴들이 있었고 돼지 산업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고 낚시대와 낚시용품들을 선물해 주셨다. 집앞에는 커다란 연못이 두개가 있어 언제든지 낚시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돼지농장에는 남아프리카, 브라질에서 온 해외 인턴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처럼 농산업에 큰 흥미가 있었고 인턴생활을 하며 경험을 쌓아 귀국하여 농장을 할 계획이었다. 나의 호스트 가족들도 그들에게 일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셨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10년이상 인턴제를 활용하고 계셨다. 베키는 전세계를 돌며 음식 봉사를 하셨었다. 한국과 북한에도 방문하여 음식 봉사를 하였고 그래서 더 잘 챙겨주셨다. 도일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다. 나 역시도 아직 배울것이 많은 입장으로써 더욱 배움을 위해 힘쓰고 많은 것들의 경험을 통해 나중에 경험들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Rovey Family - Wayne Rovey, Catherine Rovey

로비가족은 정말 따뜻한 가정이었다. 웨인은 IFYE를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캐서린은 IFYE에 참여했었다. IFYE에 참여했던 가정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해주시려고 노력해주셨



다. Rovey 가족은 5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는 어렸을때 세상을 떠났고 4명의 자식들만 남았다. 막내인 Brandon은 언어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경기에 열정을 쏟았다. 그런 브랜든을 아낌없이 지지해주시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캐서린과 웨인을 보며 그들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었다. 브랜든은 야구를 좋아해서 장애인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했다. Rovey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날 브랜든이 출전하는 경기를 보러갔고 다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었다. 처음 보는 경기였지만 그들의 부모님의 응원과 선수들의 열기는 일반 야구장의 분위기와 같았다. 잘 던지지 못해도, 잘 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Rovey 가족들은 스포츠를 좋아했다. 지하에는 탁구대가 있었고 우리는 시간이 날때마다 탁구를 쳤다. 또 동네에 있는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와 피클볼을 쳤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스포츠였고 너무 재밌었다. 웨인은 저녁쯤에 라이딩을 즐기는데 미국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었다. 라이딩을 하며 웨인 동네를 따라 스프링필드강을 지나면서 저녁노을을 함께 봤다.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보트를 타러 스프링필드 강에 갔다. 웨인과 캐서린은 주말마다 수상스키를 즐겼다. 나도 한국에서 웨이크보드를 탄 경험이 있었기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 스프링필드에서의 보팅은 너무 아름다웠다. 날씨도 정말 좋았고 수



상레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뜻깊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타던 웨이크 보드와는 다른점이 많아 제대로 탈 수가 없었다. 10번이 넘도록 시도해봤지만 손의 근육도 빨리 피로해져서 첫번째 웨이크보드는 한번도 일어설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다음주에 또 웨이크 보드를 타러 갔고 5번의 시도 끝에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탔던만큼은 타지못해 아쉬웠다. 세번째 보트를 타러 갔을때 나는 결국 감을 잡았고 자유롭게 웨이크보드를 즐길수 있었다. 내가 만약 처음에 포기했었다라면 나에게는 스프링필드 강에서의 웨이크보드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근육이 다 풀려도 밧줄을 손목에 감으며 일어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추억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나는 한번도 No 라는 대답을 한적이 없다. 어떠한 제안이든 Yes, I can 이라는 대답을 했고 실패할때마다 I never give up 이라고 대답했다. 한순간도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에는 대가가 따랐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웨인의 형제들은 옥수수 농장과 종자회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웨인과 함께 옥수수 종자회사에 방문해서 산업의 프로세스를 배우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 수 있었다. 또 웨인과 함께 사료회사를 비롯해 농축산업 분야의 회사, 농장 등에 방문하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시카고는 꼭 한번 가보고싶었다. 서울이 아닌 큰 도시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명소도 경험해 보고싶었다. 그래서 웨인과 캐서린은 나를 위해 시카고 여행을 계획해 주셨다. 스프링필드에서 시카고까지는 4시간정도 걸렸던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시카고로 출발해 필드박물관과 쉐드 아쿠아리움, 화이트삭스의 야구경기를 관람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에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또 나는 시카고 여행을 통해 나뿐만이 아닌 가족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을 선물해주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카고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둘째딸의 집으로 Blair와 Avery의 베이비 시팅을 하러 갔다. 그리고 웨인과 함께 미시시피강에서 라이딩을 즐겼다. 말로만 듣던 미시시피강을 직접 보고 게다가 그 옆길을 따라 라이딩을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웨인과 캐서린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주셨다. 나의 취미인 낚시도 함께 해주시고 각종 컨퍼런스와 행사에 데려가 주셨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창업을 꿈꾸고 있는 나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2일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셨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들을 선물해주신 Rovey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다.



### IFYE를 마치며

나는 이번 IFYE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4-H를 해보고싶다라는 작은 마음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내가 미국에 있다는게 놀라웠다.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걸까?'라고 나에게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은 도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매일 매순간이 나에게 도전이었고 그에 따른 성장을 해왔다. 재수라는 도전, 군대에서의 도전, 편입이라는 도전, 4-H라는 도전, 그리고 IFYE라는 도전까지 언제나 도전을 해오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나였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수 있었다. 나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현실에 안주할 때 가장 불안함을 느끼고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 매일 뛰다. 가끔은 힘들때도 있지만 결과를 위한 당연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IFYE 프로그램동안 1분 1초라도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좋은 체력을 갖고있는 나지만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다보니 몸이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컨디션 관리를 열심히 했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동안 호스트 가족들은 나에게 많은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어했고 나는 단 하나도 거절하지않았다. 언제나 'I want to try.'라고 대답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IFYE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할 때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배우고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얼마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크기만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도전에는 항상 성장이 있다는것을 배우게 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감사의 말

이번 IFYE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주신 한국 4-H본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보내주신 만큼 저도 꼭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